'문화 온정'…따뜻한 송년

연말연시 풍성한 나눔전

광주신세계갤러리 'Art port' 1만4000원~2000만원대 12일까지 180여점 전시 판매

515갤러리 수공예품 '팔자전' 아트타운 '걸고 싶은 그림전' 갤러리엠파씨 이웃돕기 소품전



송영학 작 '짠바람이 불어오며'

연말연시를 맞아 광주 지역에서 소품·나눔전이 풍성하게 열린다. 대부분 저렴한 가격에 회화, 설치, 조각, 공예등 다양한 작품을 판매한다. 또 수익금일부는 불우이웃돕기에도 쓰일 예정이다. 그동안 미술품을 구매하고 싶지만만 많은 가격대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에게는 싼 가격에 작품을 구입하고 남도 도울수있는기회다.

광주신세계갤러리가 12일까지 2016 작가 미술장터 '트렁크 in Art port-新 세계 Tour'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작가들에게는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관람객들에게는 작품을 저렴하게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신세계백화점 3개점포(광주·부산·인천)가 함께 기획한 '작가 미술 장터 개설 지원사업'이다.

광주에서는 도시재생을 실현중인 지역 작가·디자이너 그룹 '지속가능 디자인 트렁크 위원회'가 기획·진행을 맡았다. 참여작가는 20~30대 청년작가 30명을 비롯해 강운·김병택·김종두·김진화·신양호·오영일 등 중견작가 6명등총 36명이다.

참여작가들과 기획자들은 지난 10월 'Art Port 탑승준비' 사전 워크숍을 갖 고 사례발표와 토론을 통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회화 위주로 판매한 부산·인천과는 달리 공예품을 대거 출품하며 차별성을 뒀다.

최소 1만4000원짜리 소품부터 최고 2000만원에 이르는 미디어작품까지 만 날 수 있다. 회화, 조각, 사진, 공예, 영상 등 다양한 장르 작품 180여점을 전시·판매하며 평균 판매가는 100만원수준이다.

신세계갤러리는 'ART PORT' 주제에 맞춰 트렁크를 소지하고 방문한 관람객에게는 작품을 10%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매주주말에는 작가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오는 10일 오후 3시에는 김종두 작가가 참여해 '2017 대복기원 만화 시연'(2017 연하장) 행사를 펼친다. 디자인 스튜디오 DNA는 11일 오후 2시 '페이퍼토이 만들기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62-360-1631.

매년 연말마다 나눔전을 열고 있는 남구 양림동 515갤러리는 팔자전(展) '나눔+크리스마스 수다(手多)'를 12~ 27일 진행한다. 수공예품 위주로 판매 한다는 뜻에서 전시명을 지었다.

인터는 듯에서 전시성을 시웠다. 이번 전시에는 신성창, 이치헌, 김영 민, 한우석 작가와 함께 기획했다. 소품 위주 공예품 약 40여점을 선보인다.

플로리스트 신성창 작가는 다양한 꽃 공예 작품을, 이치현 도예가는 다완(茶碗·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잔 또는 사발)을 전시한다. 국가무형문화재 99호소반장 이수자 김영민 작가는 전통 소반을 출품하고 한우석 작가는 작은 목공예품을 판매한다.

공예품들이지만 가격은 크게 비싸지 않다. 전시 취지에 공감한 작가들은 적 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기 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가를 책정했 다. 판매 수익금 일부는 지역 어려운 이 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문의 062-654-3003.

예술의 거리에 자리한 아트타운갤러리는 13일부터 31일까지 '우리집에 걸고 싶은 그림'전을 기획 중이다. 지역 중견작가 20명을 초청해 소품 위주 회화작품 100여점을 판매할 예정이다. 가격대는 30만원, 50만원 등 비교적 저렴하다. 문의 062-232-7141.

수완지구에 자리한 갤러리 엠파씨에 서도 23일부터 2017년 1월12일까지 불 우이웃소품전을 열 예정이다. 문의 1877-676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신양호작 'a fish'

'빛2016'…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

내년 2월26일까지…수림문화재단 내년부터 하정웅미술상 제정

광주시립미술관이 제16회 하정웅청년 작가초대전 '빛2016'(이하 빛전)을 2017 년 2월26일까지 열며 올해 전시를 마무

빛전은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 관장의 기증 정신을 기려, 한국미술을 이끌 청년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시회이다. 매년 전국에서 작가 5~7명을 선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작가 80명을 배출했다.

올해는 김인숙(서울), 김화람(부산), 이 승수(제주), 정광희(광주), 홍원석(대전) 등 5명이 선정됐다.

김인숙씨는 제일교포 3세이지만 한국 국적을 택한 사진 작가다. 한국과 일본 경계에 서 있는 학교와 가족을 주요 소재 로 국가와 세대를 뛰어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오사카 비쥬얼 아트스쿨, 서울 한 성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부산 출신 김화람 작가는 부산대 미술 대, 영국 첼시대 대학원, 홍익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스틸 판, 빛, 텍스 트를 이용해 새로운 느낌의 공간을 창출 한다. 스틸 판에 새겨진 텍스트를 뚫고



김화람 작 'SERVE·VANITAS·FETISHISM·EMPTY'

나오는 빛을 이용해 차가운 금속과 따뜻 한 빛 이미지를 전달한다.

제주도 출신 이승수 작가는 돌과 동(**銅**)을 이용해 제주 풍경과 이야기를 표현한다. 철선으로 만든 해녀를 전시장 천장에 설치해 물질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호남대 미술학과, 중앙대 예술대학원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한 정광희 작가는 대학에서 서예를, 대학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했다. 접은 종이에 쓴 서예 필법으로 현대적 수묵 설치 작업을 한다. 마지막 홍원석 작가는 부산비엔날레에 '아트 택시 드라이버' 시리즈를 출품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 영상 작품으로 본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편, 하정웅 명예관장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수림문화재단과 연계해 내년 부터 하정웅미술상(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빛전 참여 작가로, 전시이후에도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북돋는다는 방침이다. 문의 062-613-7141./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선욱 피아노 연주 영상으로 만난다

오늘 빚고을아트스페이스

2006년 리즈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 스트 김선욱의 연주 실황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문화재단이 올해 마지막 예술의 전당 영상화(SAC on Screen) 프로그램 으로 지난 7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 실황을 선보인다. 7일 오후7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이번 공연에서는 '모차르트 환상곡 d 단조, K.397', '슈베르트 피아노소나타 18번 G장조, D.894', '베토벤 디아벨리 변주곡, Op.120' 등을 들려준다.

'SAC on Screen'은 다양한 각도에서



10대 이상의 4k 카 메라로 촬영된 초 고화질 영상을 생 동감 있게 편집해 생생한 표정과 몸 짓을 관객들에게 감동적으로 전달,

고음질의 음향은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다. 무료 관람, 선착순 100명 예약. 문의 062-670-7941/김미은기자 me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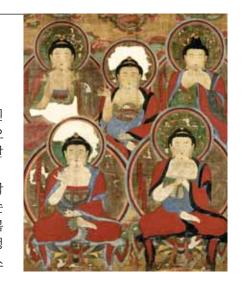
도난 반출 '송광사 오불도' 美서 귀환 포클랜드 박물관 기증식…14일 송광사 운반

내년 상반기에 돌아올 예정이었던 18 세기 불화 '송광사 오불도'〈사진〉가 8일 한국 땅을 밟는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순천 송광사에서 도난당한 뒤 미국 포틀랜드박물관에 서 존재가 확인된 송광사 오불도 기증 식을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포틀랜 드에서 열어 불화를 인수했다고 6일 밝혔다.

었다. 가로 117cm·세로 157cm 크기인 송광 사 오불도는 '관약왕약상이보살경'(觀藥 王藥上二菩薩經)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 인 '오십삼불도' 중 하나로 1725년 제작 됐다. 오십삼불도는 칠불도 1폭, 구불도 2폭, 십사불도 2폭, 오불도 2폭 등 7폭으 로 구성됐으며, 오불도 2폭은 도난된 상 태였다. 이번에 돌아오는 오불도는 불조전 왼쪽 출입문 벽에 걸려 있던 그림이며, 오른쪽 출입문 오불도는 여전히 행방을 알수 없는 상황이다.

오불도는 8일 오후 종로구 불교중앙박 물관에 도착한 뒤 14일 본래 소장처인 순 천 송광사로 운반된다. 송광사는 내년 봄 에 성보박물관을 개장하면 전시할 예정 이다. /연합뉴스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mark>222-0072, 226-580(</mark> World Sculpture Ornament Museum (구. 카톨릭센터 위 급남엔선 18)





